

일본, 생활도로 안전 위한 '존30플러스' 설정

https://www.mlit.go.jp/report/press/road01_hh_001485.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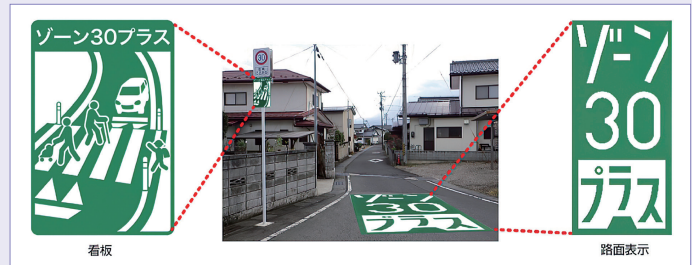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419903.pdf>

일본 정부가 생활도로 안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로국, 경찰청 교통국과 연계하여 '존30(ゾーン30)' 지정 구역에 진입·속도 억제를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는 '존30플러스(ゾーン30プラス)'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주체가 따로 추진해 온 사업을 통합하고, 제한속도 규제에 더해 물리적 장치를 적절히 조합해 안전한 보행공간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존30플러스 설정을 위해 우선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과 지역 관계자의 요청 등을 파악하고, 도로국과 경찰청이 구역을 설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대책 내용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정비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정비계획에 따라 대책을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여 정비계획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존30플러스 구역은 진입 억제를 위한 라이징 볼라드 외에 속도 억제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스무스 횡단보도, * 차도 폭 좁힘, 슬라롬형·크랭크형 도로가 적용되어 보행하는 데 안전하도록 정비된다.

한편 국토교통성은 존30플러스 사업의 내용이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30플러스 사업의 대표적 교통정온화 시설인 스무스 횡단보도를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존30플러스 구역 입구 표시



존30플러스 정비 내용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2021). 생활도로의交通安全に係る新たな連携施策「ゾーン30プラス」について. 8월 26일 보도자료.

* 고무 블록을 이용해 횡단보도 부분을 10cm가량 높이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와 협포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색 도장 등을 실시한 시설